전략리뷰

Reviews on Views and Insights

2021-1호

노동당 8차 당대회를 보는 미국의 시각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노동당 8차 당대회를 보는 미국의 시각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방문연구원
스팀슨센터 38North 기고 / 2021. 1.19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외부 안보 상황 개선을 언급한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에 설득해온 방식을 수용한 것인 동시에 지난 20년간 북한의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무성의를 지적하며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렸으나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는 눈에 띌 만큼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특히 유념할 것은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유효한 출발점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철천지 원수(sworn enemy)라고 지칭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주적(principle enemy)이라고 묘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인식이 도덕적인 시각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바뀐 것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을 25차례 방문한 바 있는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담당관은 노동당 8차 당대회 결과에 대해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고 외교적으로는 관여정책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

루디거 프랑크(Ruediger Frank) 비엔나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스팀슨 센터 38North 기고 / 2021.1.19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 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9년 간 집권 이후 피로감을 느끼거나 통치의 안정성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하급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했지만 여전히 중앙위원 138명 중 21위의 자리에 있고 8차 당대회를 보도하는 북한의 공식보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1년 이후 30년간 북한 경제와 내부 정세를 관찰해온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총비서가 당적 영도력 강화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러시아에서 스탈린 사후와 유사한 집단 지도체제가 모색될 수도 있다고 전망

마커스 갈로스카스(Marcus Garlauskas) 애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

애틀랜틱 카운실 기고 / 2021. 1.13



"김정은의 개막연설에서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완화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 김정은의 유사한 연설 뒤에 군사적 핵능력을 대놓고 드러내 보이는 일이 뒤따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차 당대회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근본적 경제개혁을 회피하겠다는 김정은의 결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미국은 경제적 혜택을 대가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래 전에 포기했다."

"몇 년만이라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막는 것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실험해온 무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형무기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 수준을 넘어 진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어렵지만 진정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 마커스 글로스커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북한의 핵능력 평가에 기반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 우선순위가 북한에게 인센티브와 처벌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

○ 북한 내부정세를 장기간 관찰해온 미국과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의 대외성명에 등장한 표현과 비교하여 8차 당대회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반면, 워싱턴의 분위기는 8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와 대외개방 전략 추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한미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2021년 북한의 대외 및 경제전략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공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

(정리: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